

사자의 30~40%를 차지했다. 유소견 비율은 전체질병(100%) 중 위염의 평균비율은 15%, 고혈압 9.6%, 간기능이상 4.0%이며 위염의 경우 1991년 19%, 1992년 13%, 1993년 12.5%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성별 유소견 현황은 남자 49.7% 여자 51.3%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좀 높았으며, 평균 50.3%의 유소견이 발생되었다. 연령별 유소견 현황은 남자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했으며 특히 60대는 61.2%의 유소견 비율을 보였다.

여자인 경우도 남자와 비슷하였으며 병명별로 보면 위염인 경우 남자 73.6%, 여자 26.4%이며 고혈압은 남자 62%, 여자 38%, 간기능 이상은 남자 76.5% 여자 23.5%로 남자는 여자보다 200~300% 높은 유소견 비율이 나왔다.

결론

위와 같은 유소견 비율을 볼때 종합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04>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촬영실의 환경인자들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권이선 · 이민수 · 안진신 · 정경모 · 박홍진

목적

진단방사선과 촬영실의 장치로 인한 중압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촬영실의 환경인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1994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근골격계촬영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2. 동일한 크기의 2개의 촬영실을 선정하여 기존촬영실에서 114명에게 설문응답을 시행하고,

3. 변화를 준 촬영실은 1) 조명을 형광등, 백열등, 녹색등, 청색등, 황색등으로 설치하고 2) 촬영 중 들려주는 음악으로 대중가요, 서양 고전음악, 서양대중가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3) 벽면을 숲속의 사진으로 장식하여 설문을 응답하게 하였다.

4. 설문구성은 10문항으로 양쪽 촬영실 각각 시행하였다.

5. 응답자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맥박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1. 총 274명의 응답자 결과에서 2개의 촬영실 모두 평상시 병원에 대한 분위기가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는 경우는 27%인데 반하여 어수선하거나 딱딱하다는 반응이 51.8%를 나타냈으며, 본과 촬영실의 분위기는 안정감이 있다고 78.8%의 응답을 하였고, 촬영직전의 심리상태를 묻은 항목에서는 35.5%가 편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였다.

2. 촬영실 내부조명이 너무 밝아 어색하거나 불안한지에 대한 설문응답은 기존촬영실에서 불안하지 않다가 75.4%이고 변화촬영실에서 68.8%의 응답을 보였고, 조명등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형광등이 평균 57.7%이고 백열등이 13.9%이었다.

3. 음악이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도 65%를 보였고 특히, 병원직원의 친절 한 태도가 친근감이 간다고 89.1%가 응답하였다.

결론

음악, 조명, 벽면장식 등의 시정각적인 촬영실의 환경변화를 통하여 환자의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음악과 벽면의 장식을 통하여 다소 높은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조명의 경우 기존의 것을 선호하였고, 검사자의 친절에 대한 관심도가 환자의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촬영실의 인자로서 약 90%의 호응도를 얻었다.